

# “수난의 역사에서 배우자” 근대 시간여행 인기

## 목포 근대역사관

옛 일본영사관·동양척식회사 등 개항기 이후 모습 고스란히 남아

다양한 유물...역사교육의 장으로 광복 70주년 맞아 관람객 줄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목포지역 근대문화유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 대의동 유달산 자락의 옛 목포 일본영사관(국가사적 제289호)과 중앙동 소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전남도 기념물 174호)이 현재 목포 근대역사관 본관과 별관으로 각각 변모해 탐방객을 맞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관을 찾아 혹독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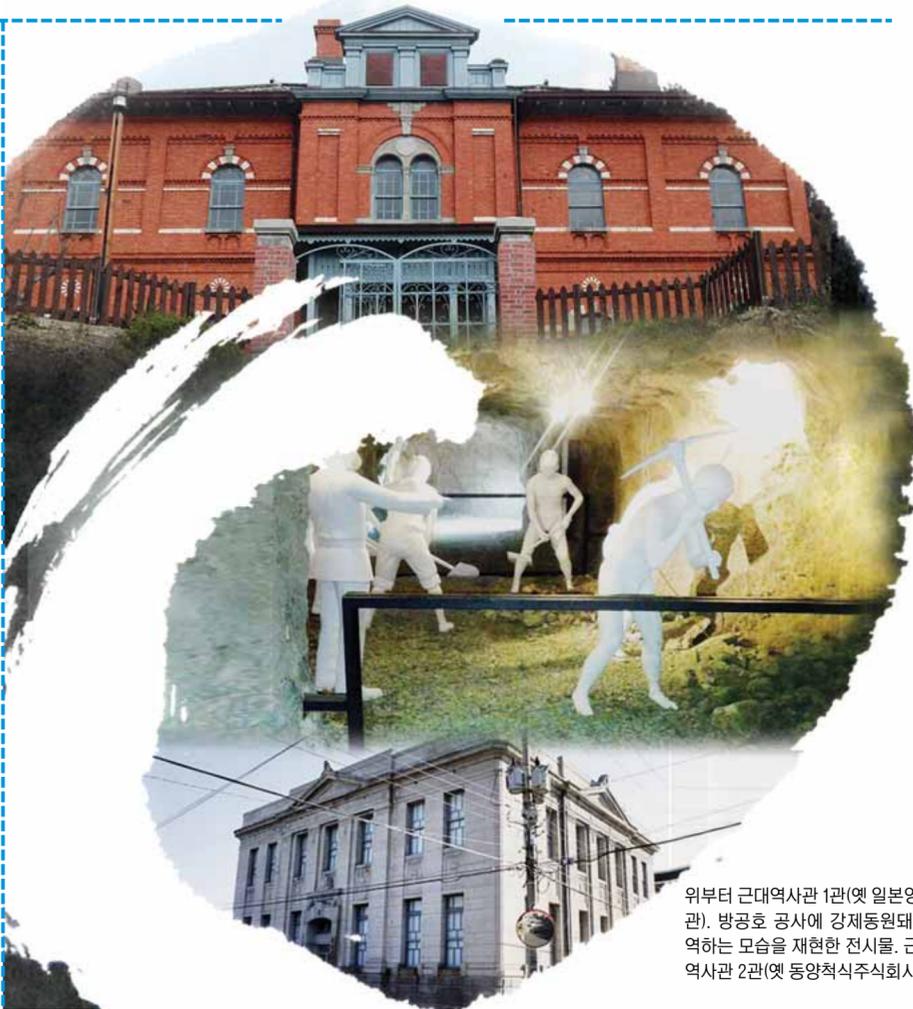
◇근대역사관 1관(옛 목포 일본영사관) = 리모델링을 마친 옛 목포 일본영사관이 지난해 2월 28일 목포 근대역사관(본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옛 목포 일본영사관은 1897년 10월 목포 개항 이후 일본의 영사업무에 의해 당시 공사비 7만여 원을 들여 1900년 12월 완공한 2층 석조 건축물(연면적 597.68㎡)로서, 목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지금의 선창가 쪽을 바라보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을 비롯해 구 일본인 조차지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반대로 조차지 지역에서 바라보면 유달산 언덕부분에 자리하고 있어 매우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

광복이후 1947년부터 목포시청, 1974년부터 (구)목포 일본영사관, 1990년 1월부터는 목포문화원으로 사용되다 전시관과 방공호, 수장고 시설에 대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설치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4년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개관했다.

목포 근대역사관은 1890년대 개항기 이후 일제의 수탈과정을 비롯해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목포지역 정치·경제·문화·항일운동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전시 유물로는 1903년 정3품 통정대부 김성규를 무안감리에 임명한다는 고종의 '갑리 칙령서' 진본이 있다. 또 1930년대 일제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이 사용한 토지 측량기 진품,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고자 광고했던 '조선농업 이민 모집'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특히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방공호 파기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는 모습을 디오라마(diorama =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해 하나의 장면을 만든 것) 기법으로 사실감 있게 재현해 보여준다.

◇근대역사관 2관(동척 목포지점) = 일제는 우리나라의 토지와 농산물 등 경제수탈을 위해 국책회사이자 착취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를 세웠다. 경성(서울)에 본점이, 주요 농업지역이자 교통 요충지인 목포와 부산·이리·대전·대구·원산·평양·사리원 등지에 지점이 설치됐다.

척식(拓殖)은 '식민지 개척'을 의미한다. 목포에 척식회사 지점을 둔 것은 '1후(김) 3백(쌀·면화, 소금)' 등 농·수산물에 풍부한 지역인데다 물자운송에 요긴한 요

충 항구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대표적 경제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은 1921년 건립한 르네상스식 2층 건물로, 이를 두고 '일제 잔재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탈의 상징물을 그대로 보존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오다 지난 1999년 11월 전남도 기념물(제174호)로 지정됐으며, 목포지역의 개항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06년 근대역사관으로 개관했다.

전시실 내부 1층은 1920년대 목포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사진 80여점과 당시 동양척식회사가 쓰던 금고 등이 있으며, 2층은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상징적 사진 9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육중한 철제 금고 문 뒤에 자리한 커다란 방은 한때 모두 금

위부터 근대역사관 1관(옛 일본영사관), 방공호 공사에 강제동원돼 노역하는 모습을 재현한 전시물, 근대역사관 2관(옛 동양척식주식회사).

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특히 2층은 조선왕조 최후의 모습과 빼앗긴 조국, 침략자 일본, 일제의 아시아 침략, 항일 구국운동과 수난, 일본의 패망과 광복 등의 테마 순으로 사진이 배치돼 있다.

근대역사관 1·2관 개관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까지이다. 본관(1관) 관람료는 무료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료화돼 성인 2000원, 청소년·군경 10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근대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목포수난의 역사와 1920년대대 잊혀져 가는 목포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인식의 산 교육장으로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근대역사관1관 061-242-0340, 2관 061-270-8728) /목포=임영춘기자 lyc@

# 유엔 초대전 앞둔 김근태 화백 전국 순회전

20년 넘게 장애인만 그려...목포·대구 등서 전시회

20년 넘게 장애인만을 그려온 화가가 12월 유엔본부 전시회를 앞두고 전국 순회전을 갖는다.

화제의 주인공은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근태(58) 화백.

김 화백은 오는 13~22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4월 대구에서 20일간 전시회를 가진 뒤 초청이 있는 시·도를 우선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 예정이다. 전국 순회전시 현장에는 해당 지역의 복지시설 원생과 장애인들이 초청된다.

목포 전시회 'U&설렘'에서는 130cm의 100호 크기 그림 77개를 합쳐놓은 102.4m에 달하는 대작 '들꽃처럼 별들처럼'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캔버스를 약보로, 장애인을 음표로 형상화하고, 장애인들의 삶을 사계절로 표현했다.

김 화백은 "비발디의 사계에서 영감을 얻어 장애인들의 희로애락을 사계절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 가릴 것 없이 80명에 이르는 주인공들을 찾았



102.4m 대작 '들꽃처럼 별들처럼' 앞에 선 김근태 화백.

고, 1년 동안 비무장 지대 등지를 들며 배경 작업을 마쳤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유엔 창립 70주년인 올해 국내 서양화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유엔본부에 초대돼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유엔본부 갤러리에서 오픈 행사를 연다.

김 화백은 "장애는 인류가 함께 공존해야 할 다양한 삶의 방식"이라면서 "장애와 인종 등 다양한 편견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목포시가 전 도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지난 26일 목포역 광장에서 박홍률 시장과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조준태 목포 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해 목포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 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등 500여명이 참석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략한 기념행사 후 어깨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목포역에서부터 차 없는 거리까지 600m를 행진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온 나라의 거리마다 가정마다 태극



목포시 기관단체장과 회원들이 지난 26일 목포역에서부터 차 없는 거리까지 전 도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의 물결로 일렁이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는 1일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유달산의 새천년 시민의 종각에서 시민의 종 타종식을 가진 후 3·1 독립운동상을 참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암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인**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